천연기념물 '사수도' 쥐떼로 몸살

낚시배 통해 유입 추정… 바닷새 번식 악영향 개체수 급증 우려… 포획·낚시꾼 출입통제 절실

바닷새류 최대 번식지로 천연기념물 제333호로 지정된 제주 '사수도'가 쥐떼의 습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수도는 추자도에서 약 20km 떨 어졌으며, 동백나무와 후박나무 등 9 종의 상록활엽수가 숲을 이루는 무 인도서다. 특히 이 곳은 진귀한 텃새 인 '흑비둘기'의 서식처이며, 여름철 새인 '슴새'의 최대 번식지로 꼽히 면서 지난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3 호로 지정됐다.

하지만 최근 사수도 내에 유입된 설치류의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바닷새 번식지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류 대부분은 '집쥐'인 데, 낚시객을 태운 선박이 사수도에 정박하면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제주 사수도 흑비둘기·슴새 번식지 설치류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연구'

조사 결과 굴을 파서 둥지로 사용 하는 슴새가 집쥐에게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이 무작위 로 선택한 41개의 슴새 둥지 가운데 무려 28개의 둥지가 집쥐에게 습격 을 당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28개 둥지 가운데 8개 둥지는 집쥐 에 의한 포식 증거가 확인됐고, 나머 지 20개 둥지는 알 또는 새끼가 사라 져 있었다.

사수도에는 100개체 정도의 집쥐 가 서식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환경 에 따라 1000여마리로 개체군이 급 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포획작

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흑비 둘기의 경우에는 집쥐에 의한 피해 보다는 맹금류인 매에 의한 피해만 확인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생태 계 내 먹이사슬 관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낚시배 접안 금지 및 낚시 금지 ▷ 선박 우회 및 과도한 어획 금지 ▷2 차 피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살서 제·쥐덫 이용한 집쥐 박멸 ▷밀려드 는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등의 사업 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30대 난폭운전에 전국이 '공분'

지난달 조천읍 인근 도로 항의 운전자에 폭력 행사 경찰, 재물손괴 혐의 입건 엄벌촉구 국민청원글 등장

30대 운전자가 자신의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보복 폭행 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전국 민이 분노하고 있다. >> 동영상 캡쳐

이에 누리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피의자 A(33)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8일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40분 쯤 제주시 조천읍 인근 도로에서 카 니발 SUV 차량을 몰던 중 난폭 운 전에 항의하는 아반떼 승용차량 운 전자 B씨의 얼굴을 생수통과 주먹으 로 한 차례씩 가격하고, 영상을 촬영 하던 B씨의 부인 핸드폰을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밝혔다.

8살 난 자녀들이 함께 탑승하고 있 던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을 목 격한 부인과 자녀 등은 심리 치료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상적으 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 운전 자가 항의하자 말다툼이 일어났고 순간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올라온 '제 주도 카니발 사건' 국민청원 글은 18 일 오후 2시 현재 13만1600명이 동 참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 의 수사 진행 속도가 느리다며 가해 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도 의심하고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B씨 의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현재 진술 조사를 연기한 상태"라며 "피해자도 영상이 퍼져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자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김현석기자

중국 청소년들 제주 문화 체험

제주와 중국 고교생 교류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이 2006년 상해시교육위원회, 2016년 북경시교육위원회와 교육교류협약을 체결해 지속 적으로 진행해온 국제교류 사 업의 하나다.

지난 16일에는 북경 방산구 교육위원회 소속 량향중학 고 등학생 대표단 28명이 제주를 찾았다. 지난 6월 제주지역 고 교생들이 북경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20일까지 제주 일정이 잡혔다.

이달 22일부터는 4박 5일 일정으로 상해시교육위원회 학생대표단 30명이 제주로 향 한다. 지난 5월 제주학생 대표 단 30명이 방문했던 보산중학 소속 학생과 교사들이다.

이들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와 세화 고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제주 학생들과 한국 전통문화 수업 참가, 학교 급식 체험 등 교류 활동을 벌이고 1일 홈스테이 등 제주가정 체험에 나선다.

특히 제주4·3 평화공원과 알뜨르비행장 등 천혜의 비경 속 제주의 아픈 역사를 배우 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성 산일출봉, 주상절리 등 제주 세계자연유산과 문화유적지도 돌아본다. 진선희기자

여름 끝물 해수욕장 여름이 막바지에 접어든 18일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물놀이를 즐겼다. 애견인들이 동물병원 찾는 사연…

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도, 7~8월 두달간 운영 접수 폭증…'칩'도 품절

제주도가 7~8월 반려견 자진신고 기 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등록장치가 모자랄 정도로 자진신고 가 폭주하고 있다. 수요자가 급증하 면서 도내 동물병원에서는 등록장치 가 품절돼 막상 반려견을 등록하려 해도 수주 동안 대기해야 하는 등의 반려견 신규등록이 급증하면서 도내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반려견 자진신고가 운영 됨에 따라 도내 신규 반려견 등록 수 는 크게 증가했다.

제주시의 경우 7월 한달 동안 신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로 등록된 반려견은 1700마리로,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 건수 (300마리)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서귀포시의 경우에도 자진신고 기 간을 운영하기 전 월평균 130건 정 도 이뤄졌던 신규등록은 7월 한달에 만 355건이 등록됐다. 또한 자진신고 기간이 8월말까지 운영됨에 따라 반 려견 신규 등록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지정 동물병원(제주시 39곳·서귀포 1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 11곳) 곳곳에서는 반려견 등록장 치가 품절되고 있다. 특히 동물병원 을 찾아 막상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 려 해도 수주 동안 대기해야 하는 등 정"이라고 말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김모(26)씨 는 "지난주 휴가를 내고 반려동물을 등록하기 위해 제주시내의 한 동물 병원을 찾았는데 등록장치가 품절돼 등록을 할수 없었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기 간 등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강희만기자

제주도내 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 되면서 도내 동물병원에도 등록을 희망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등록장치가 품절된 이후 다시 확보하지 못하면서 등록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반려견 2000마리 분량의 등록장치를 확보해 제주시내 지정 동물병원에 반려견 등록장치를 공급해 나갈 예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반군단체 위협"… 필리핀女 난민소송 기각

으로 인정 받지 못한 것에 불복해 소 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인 A 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했다고 16일 밝혔다.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에 해당하 있다는 것이다.

제주에서 20대 필리핀 여성이 난민 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곧바로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법원에 소송 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은 자신의 아버지와 친 (28·여)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구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인 'NPA'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총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격을 당해 자신의 친구가 사망하고 부친은 겨우 목숨을 구했으며, NPA A씨는 지난 2017년 8월 30일 한 는 탈퇴한 회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국에 입국해 난민인정신청을 했지 에도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필리핀 만, 같은해 10월 13일 '박해를 받게 에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송은범기자

VIII 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년로컬리 양마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효과 :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 2차 살포 :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감 자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 파종전 침지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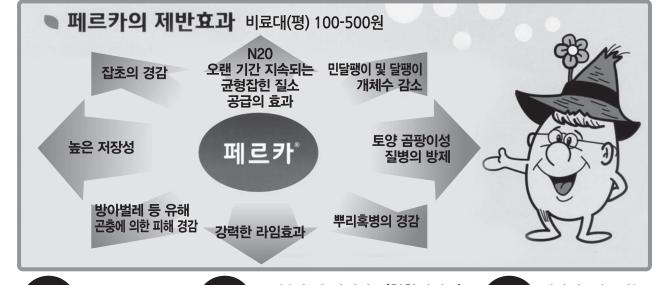
· 2차 살포 :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탱이감귤유**퉁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이 보약 "베르카칼슘베르" 120년의역사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 급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품목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열면 맥반석, 게르마늄, 시비용 황금수, 흙향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lpha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